

우주의 비밀을 대중에게 열어보인 교양과학서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① 《코스모스》에서 《카오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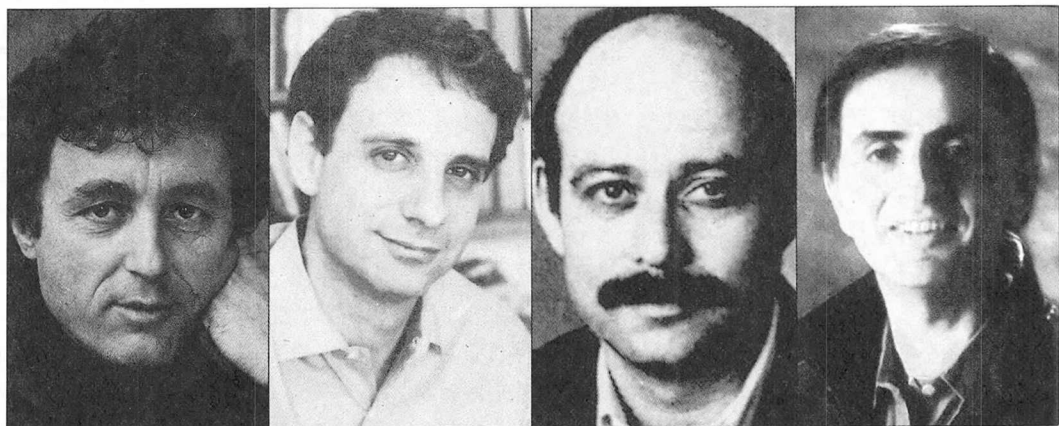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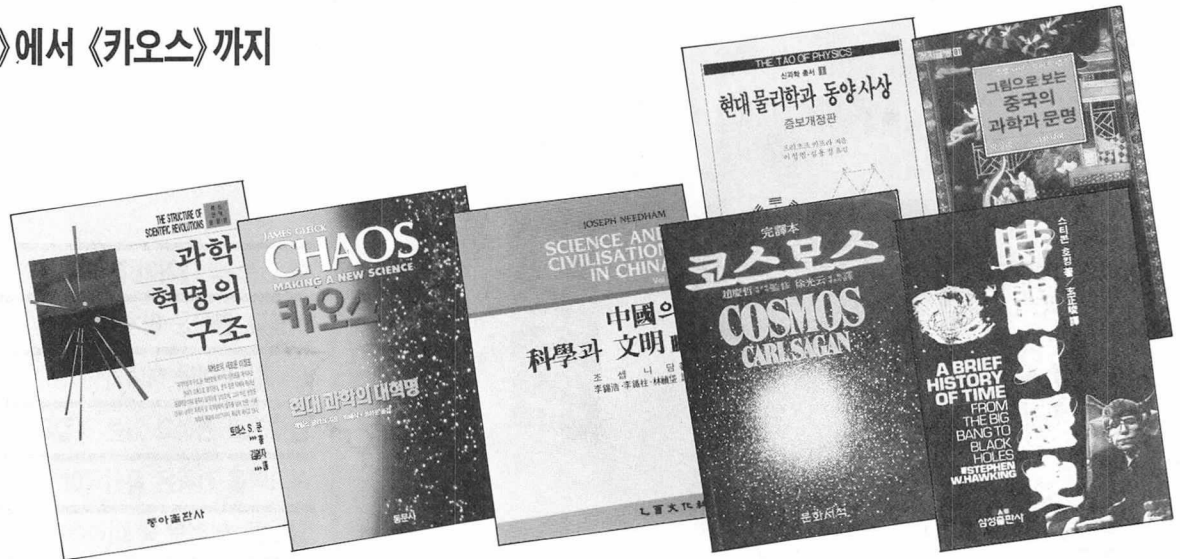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은 우리 출판이 지니온 길을 거슬러 올라오는 작업이다. 우리가 눈길을 주는 곳은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가까운’ 과거다. 80년대를 중심으로 70년대와 오늘을 포괄하면서, 독자들이 한번쯤 눈길을 뒀음직한 널리 알려진 책들을 찾아 나선다. 출판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책은 비록 베스트셀러가 못되었다더라도 빼놓을 수 없다. 한가지 주제 속에 담긴 많은 책들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코스모스》(문화서적, 1981)가 ‘시간여행’의 첫번째 ‘탐사물’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주의 바다’를 향해 ‘탐험을 시작하자’는 이 책은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이다. “우주(Cosmos)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의 사고력은 극히 빈약하지만 우주를 생각하노라면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는 달뜨며 먼 옛날을 회상하는 것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와 같은 그런 기분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신비의 세계로 다가간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흥분한다.”

‘우주’를 ‘책’으로 살짝 바꿔 보자. 책이라고 했을 때 뜻이 더 잘 통하지 않는다. 《코스모스》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처음으로 오른 교양과학서이다. 이 때만해도 교양과학을 따로 분류하지 않은 터라 이 책은 비소설 부문 상위에 올라 있다. B5 판형에 488면에 이르는 이 책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250여개의 도판이 들어간 시원한 편집과 때마침 방영된 텔레비전 도큐멘터리 등을 들 수 있지만, 그 해 3월 3일 우리는 어깨와 머리에 ‘별’을 잔뜩 달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맞이했다.

과학출판의 밑거름

문화서적에서 학원사로 제이름을 찾은 후에도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사랑을 받아온 《코스모스》는 서서히 빛을 잃고 있다. “5만부 가량 팔렸으며, 주문이 없어 더 이상 찍지 않는다”고 출판사 관계자는 말한다. 저자인 칼 세이건도 지난해 세상을 떠났



왼쪽부터
프리츠 카프라·
제임스 글릭·
제레미 리프킨·
칼 세이건.

다. 교양과학서의 기점을 《코스모스》로 잡았지만, 이 책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

한국과학출판의 전사(前史)에는 두개의 버팀목이 있다. 전과과학사와 범양사출판부가 그들. 이들은 《발명발견 과학전집》같은 어린이 전집류와 ‘SF소설’의 틈바구니에서 과학출판의 초석을 다진 선구자이다. 전과과학사(대표 손영일)는 지금은 은퇴한 손영수 씨에 의해 1956년 창립, 통신 분야의 기술서적을 펴내다가 72년 교양과학서 출판에 뛰어들었다. 139권이나 펴낸 ‘현대과학신서’를 중심으로 순수과학과 기초과학 방면으로 350여종을 펴냈다. “유학에서 돌아온 젊은 자연과학도들이 번역을 맡았고, 때마침 불어준 문고본을 탔다”고 손영일 사장은 회고한다. 전과과학사는 다윈의 《비이글호 항해기》등을 통해 견제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성범 회장이 58년 설립한 범양사의 경영권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출판부를 세운 것은 78년 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일념에서였다. ‘신과학총서’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목록은 과학의 대중화를 염두에 두면서 혁신적인 새 이론으로 채웠다. ‘동양’ ‘등정’ ‘바디’는 지금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신과학총서의 삼총사.

《동양물리학과 현대사상》(1979)은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세계관과 동양사상의 유사점을 파헤친 ‘작품’으로 우리나라에 프리츠 카프라 선풍을 몰고왔다. 범양사 출판부는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1985), 《탁월한 지혜》(1989) 같은 카프라의 저서를 잇따라 내놓았다. 카프라의 저서 세권과 《인간 등정의 발자취》(브로노프스키, 1985), 《바디워킹》(테즈먼드 모리스, 1986) 등은 5만부 가량 팔렸다. 이 가운데 ‘동양’에 대한 호응도가 가장 높아 28쇄 10여만부를 찍었고, 지금도 일년에 두번 2천부씩 새책을 찍는다. 범양사 출판부의 최근작으로는 지난해 신과학총서 50권 돌파를 기념해 펴낸 《개미세계여행》이 있다.

사회과학과 과학사

80년대 중반은 교양과학서의 휴지기. 위에 언급한 범양사 출판부의 책을 제외하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지식산업사, 1982)에서 폴 데이비스의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정신세계사, 1988) 사이에 이렇다 할 과학책이 보이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80년대 중반은 사회과학의 전성기가 아닌가. 사회과학서의 틈바구니에서 자연과학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있는 보루들이 있으니, 바로 과학사 관련서적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말로 된 과학사 개설서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박익수의 《신과학사론》(1959)을 시초로 70년대 후반 기틀을 다지게 된다. 오진근의 《서양과학사》(현대과학신서, 1978), 박성래의 《과학사서설》(한국외국어대출판부, 1979), 송상용의 《과학사 중심의 교양과학》(우성문화사, 1980) 등이 속속 출간된다. 특히 송상용 교수의 책에는 과학사관계 참고서적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지만, 이 책은 절판되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송교수의 《서양과학의 흐름》(강원대출판부, 1990)에도 실려 있으니.

조셉 니덤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I》(을유문화사, 1985)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다. 이듬해 둘째권이 나오고, 88년 셋째권이 우리말로 옮겨졌다. 니덤이 30권 예정으로 1954년부터 쓰기 시작한 이 책은 지금까지 15권이 나왔다. 번역이 안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당분간 로버트 템플이 쓴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까치, 1993)으로 달랠 수밖에.

방대한 분량의 통사료가 국내에 소개될 때 가장 최근 쪽을 먼저 선보이고 전체 모습은 나중에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가 그랬고, 《과학의 역사 1·2·3》(한울, 1993)도 그러했다. J.D. 버날

낙시터의 즐거움

저수지와 어종만 선택해 놓으십시오.
다른 낙시도구 일체는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월척을 낚을 채비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윤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5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3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떠맡아 감당해 낼 수 있는 분은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었던 합니다.



리버사이드호텔	↑ 한남대교
우림빌딩	● 삼연은행
이린이 빌딩	SKC몰라자
	전철 3호선(신사역)
	● 월드북센터
	● 신한은행
	↓ 영동 사거리

三硯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15-1453
천리안 ID : SAMYEUN

의 과학사는 넷째권 《사회과학의 역사》(한울, 1984)가 시대의 물결을 타고 처음 소개되는데, 93년 제모습을 찾을 때는 이 부분이 빠진다.

80년대 중반 교양과학서의 성격은 인문과학서로 분류해도 표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카오스'와 교양과학의 르네상스

카프라의 이론과 과학사에서 보여주는 교양과학의 영역과괴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는 교양과학의 르네상스 때 절정을 이룬다. 소련 몰락을 포함한 세계사적인 변동으로 인해 방향각각을 상실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대체 패러다임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 시기 교양과학서의 흐름은 두가지로 나뉜다. 이미 들어와 있던 것의 되새김과 새로운 것의 도입.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이론'과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론'이 다시금 각광받는다. 제2열역학법칙을 사회현상에 적용한 '엔트로피'는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정음사판(1983)이 정본으로 인정받아 80년대 내내 10만부 정도 팔려나갔다. 《과학혁명의 구조》도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일찍이(1980) 선보인 바 있다. 이들은 90년대 들어와 동아출판사(두산동아)에서 새 등지를 들고 독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혼돈이론은 90년대 전래된 대표적인 새로운 사조이다. 카오스이론 관련서는 다수 출간되었다. 《카오스》《쉽게 읽는 카오스》《카오스와 프랙털》《혼돈의 과학》《혼돈으로부터의 질서》 등. 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카오스》(동문사, 1993)가 정상을 차지한다.

“거의 모든 책들이 대학원 교재 수준이었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은 2~3종에 불과했다. 《카오스》는 그중 하나였는데 기자가 쓴 까닭에 일반인의 수준에 꼭 맞았지만, 원체 책의 내용이 충실했다”고 동문사 김용진 사장은 승인(勝因)을 분석한다. 김사장이 《카오스》를 처음 접한 것은 88년, 《뉴욕타임즈 북리뷰》를 통해서였다. 바로 저작권계약을 맺고 책을 내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 과학전문기자가 번역을 맡았고, 때맞춘 금성전자의 카오스세탁기 광고가 한몫했음

은 물론이지만, 굳더더기 없는 제목 '카오스'가 주효했을 것이다. 《카오스》는 16쇄 5만부 가량 팔렸다.

'시간의 역사'와 현재

교양과학서는 베스트셀러라도 많은 판매부수를 갖지 못한다. 시리즈물이 연속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어렵다. 판매량은 10만부가 상한선. 다만 꾸준하게 팔리는 특징이 있다. 베스트셀러가 되면 적어도 수명이 10년은 보장된다. 이런 점에서 '재미있는~여행' 시리즈(김영사)와 《시간의 역사》는 예외다.

'재미있는'는 시리즈는 《재미있는 물리여행》(1988)을 시발로 '별자리' '수학' '생물' 등이 연달아 히트한다. '물리'를 빼고는 국내 필자의 집필인 점이 특색. 교양과학서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가 국내 필자의 발굴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시사받을 대목이 있다. '재미있는~여행'이 눈높이를 낮게 잡은 기획인 점을 감안하면서 말이다. 두권으로 이뤄진 '물리'와 《재미있는 별자리여행》(1989)은 각각 17만질 정도 찍었다.

'방정식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매상 부수가 반씩 줄어들 것'이라는 조언에 유념한 탓인지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삼성출판사, 1990)는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다. 국내에서도 46쇄 40여만부나 팔렸다. 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지만 가장 안 읽힌 책'으로 첫손 꼽히는 이 책을 우리 독자들이 어떻게 소화했는지 궁금하다. 어쨌든 《시간의 역사》가 대성공을 거두며 스티븐 호킹은 세계적인 대과학자로 떠오른다. 그의 유명세는 어느 기업의 이미지광고로 이어져 한동안 텔레비전에서 호킹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제 오늘로 눈을 돌려보자. 교보문고의 교양과학 베스트셀러목록에 《시간의 역사》는 3위에 올라 여전한 힘을 보인다. 나머지는 아쉬움을 듣게 하는 책들로 채워져 있다. '재미있는' 시리즈에서 두권, '알짜배기 과학상식' (진선출판사)에서 두권, '뉴턴 하이 라이트' (계몽사)에서 두권씩 들어와 있고 나머지 세권도 교양과학이기보다는 과학학습서에 가까운 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점의 교양과학 코너는 중·고등학생들이 진을 치고 있다.

— 최성일 기자